

# Life Together



우 리 는 이 미 더 불 어 살 아 가 고 있 습 니 다 - 5.1 시청앞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 더불어 사는 삶

2006.05 113호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_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窓

## 5. 월 . 그 . 리 . 고 . 메 . 이 . 데 . 이

선경\_ 인권모임 의료팀장

여기 이렇게 같고도 다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1886년 5월 1일, 장시간의 노동착취에 저항했던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경찰의 발포에 숨졌다. 이후 매년 이 날마다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5월 1일, 산재를 당한 중국노동자는 요양이 끝난 후 작업장에 돌아갔을 때, 다친 몸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없어 8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면 임금이 낮아지니, 사고 전 12시간 노동이 가능했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또 다른 스리랑카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잔업을 2시간 밖에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잔업과 야근, 특근이 노동인권의 침해라 받아들여지기보다, 잔업과 야근, 특근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박탈감을 느끼고 부당하다고 외치게 되는 것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한국인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KBS 스페셜에서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이른바 '고임금'은 장시간 노동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때로는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이들의 '고임금' 또한 흔히 말하는 8시간 칼퇴근에 높은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자리 박탈이란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임을 사업주들 또한 잘 알고 있다. 잔업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해고를 표하는 사업주, 그리고 그러한 처우가 해고로 느껴지는 노동자들. 그 때문에 비정규직이 날로 확산되는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이 괴로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말했다가 해고될까 두렵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를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자기 노동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을 벌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원한다. 장시간 노동은 장시간 노동만으로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노동환경개선 요구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단 3년의 노동기회만이 주어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언제 단속·추방될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8시간노동은 오히려 배부른 소리이다. 게다가 숙련되어도 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만을 받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의 보전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 유한재인 시간.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시간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 사뭇 다르더라도, 젊은 날의 많은 시간을 기계와 상품 속으로 날려 보내야만 하는 노동현상이 있다는 점에서 1886년의 시카고와 2006년의 한국은 똑같다.

##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수많은 문송면들

김현주\_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국 국장

문송면 군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쓴다.

1988년 7월 그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은중독이라는 끔찍한 산재로 죽음을 맞았다. 결국 그가 죽은 7월은 산재추방의 달이 되었고, 우리는 그를 가슴에 묻었다. 바야흐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노동자들의 함성을 뒤로 한 채 그렇게 그는 떠나갔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와 네팔을 다녀오면서 수많은 문송면을 만났다. 밥을 한 그릇 먹으러 식당에 가면 그곳에도 문송면보다 어린 소년들이 있었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가게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그랬다. 섬유노동자로 일하는 수많은 아이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기만 했다. 그 아이들은 아침 8시 경이 되면 공장으로 출근해서는 밤 9시, 10시경까지 미싱을 돌려야했다. 뿌연 백열등 아래에서 미싱을 돌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우리의 차장 언니야들처럼, 구미공단의 공순이언니야들처럼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자마자 제 2의 도시 치타공에서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술렁거리는 듯 했고, 내가 참석했던 섬유노동자들의 집회에서도 피맺힌 목소리로 이 사실을 보고하는 듯 했다. 불에 탄 시체 속에 섞여 있을 섬유노동자 아이들의

수많은 주검이 떠올라서 또 소름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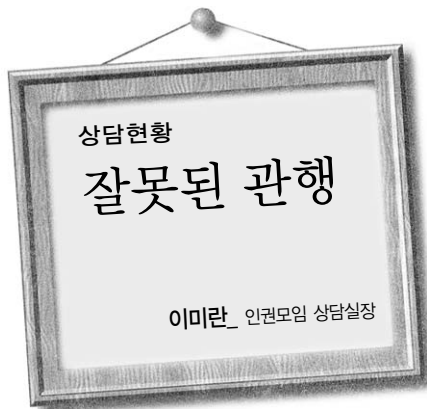
대안은행의 모범이라는 그라민뱅크의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수많은 벽돌공장을 보았다. 그라민뱅크가 민중의 벗으로 출발한 그 첫 마을을 잃어버린 것도 슬펐지만, 그 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햇볕이 내리쬐는 벽돌공장에서 맨 살갓을 드러내놓고 일하는 아이들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그 벽돌공장들이 '그나마 섬유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강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다.

네팔에서는 작은 전화가게를 운영하는 굽타 동지를 만나러 갔다가, 벽에 걸린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그 포스터에는 피악볕이 내리쬐는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소년들의 고단한 삶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네팔의 아동 강제노동 중단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알리는 포스터였다.

역사는 반복이라고 했던가?

잊어버리고 있던 문송면을, 차장 언니야를, 공순이 언니야를 방글라데시와 네팔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어쨌든 네팔을 다녀 온 건 잘한 것 같다. 굽타동지의 가게에서 포스터를 보고 왔으니 말이다. 더욱이 우리가 연대해서 싸울 것은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강요하는 수많은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고, 업체에서 신분증을 압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굳이 출입국 관리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중국인 완씨와 청씨는 선원연 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5개월간 한 푼의 임금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도 없어 가족들이 많이 힘들다며 인권모임을 찾았다. 업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더니 업체에서는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한 달 치밖에 없으며, 본인들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매달 임금을 송금했다고 했다.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장

을 확인시켜 주고, 송금도 해준다고 했다. 본인들의 요구가 있건 없건, 왜 신분증과 통장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원래 선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기 때문에 신분증과 통장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분증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들에게 당장 돌려주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연수관리 업체에 통장과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버렸다고 했다.

연수관리업체에 연락해 당장 본인들의 신분증과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달라고 했다. 연수관리업체는 임금은 업체에서 곧바로 송금하기로 했고, 신분증과 통장은 서울로 직접 오면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던 다른 친구는 똑같은 상황에

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연수관리업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연수관리업체에 신분증 등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요구했지만 관리업체는 부산으로 가기 힘들다며 본인들을 보내라며 실랑이 끝에 결국 신분증과 통장을 우편으로 본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압류하고 있는 업체들은,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는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여권을 압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당연시 여긴다. 오히려 신분증을 돌려주고 난 뒤 업체를 이탈하면 인권모임에서 책임질 거냐고 따진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당연한 일인가.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다르다고, 과연 한국사람과 이주노동자는 뭐가 다른가. 인권침해를 하고도 그것이 인권침해인지 모르는 관행들이 더 위험하다.

아드보카트.

월드컵과 축구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이 들뜨고 있는 지금, '아드보카트'라는 이름을 러시아 노동자 B씨에게서 들었다. 아드보카트는 러시아 말로 '변호사'라고 한다. B씨는 한쪽 손에 산재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자신을 '아드보카트'라고 소개하는 한국인



K씨를 만났다. 한국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B씨는 산재사고처리를 '아드보카트 미스터 K'에게 맡겼다. 이후 그는 K씨의 소개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보상금을 받자, K씨는 수수료로 장해보상금의 10%인 250만원, 병원비 400만원을 요구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병원을 옮길 때에도 병원비 걱정은 말라던 K씨와 병

원 측의 설명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B씨에게 병원비 400만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게다가 병원을 옮긴 뒤 근 4달 동안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휴업급여 청구조차 해주지 않았던 K씨가 수수료로 25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K씨는 B씨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마구 화를 냈으며, 결국 B씨는 650만원을 K씨에게 지급했다.

먼저 K씨에게 연락을 취하니, 그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전문으로 산재처리를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재노동자가 단속되면 일시보호해제를 위해 보증도 서 준다며 자기를 소개했다. 병원 측은 입원요양 승인이 끝난 시점에 병원을 옮겼기 때문에, 입원비는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약 4달간의 숙식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400만원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M씨도 인권모임을 찾아왔다. 혹시 자신도 퇴원하면 병원비를 내야 되냐며 얼마나 내야 되는지 물어왔다. 병원측에

연락하니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자격을 갖춘 노무사도 아니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근거도 명확치 않은 K씨도, 입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에서 입원을 시키고, 입원 중에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입원비를 사후 청구하는 병원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M씨가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병원을 옮길 수 없다고 우기던 병원과 K씨는 검찰과 노동부에 진정했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650만원을 돌려받았고, 병원과 K씨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M씨는 전원하여 다시 요양 중이다. 미등록체류에 산재노동자라는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범죄 앞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틈을 누가 만들어놓았는지 묻고 싶다. 누가 산재노동자를 단속하고 있는지, 미등록노동자들은 왜 단속의 대상이 되어 이렇다 할 노동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말이다.

## 이주여성들의 서울나들이

김나현\_ 베트남계 한국인 어울림교사

지난 4월 2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 여성 인권연대'에서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다. 그 날 어울림식구들 모두가 참석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 늦지 않으려면 일찍 가야하는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선다는 것이 이상해 잠을 설쳤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내가 피곤할까 봐 아침밥도 먹지 않은 채 출근했다. KTX 개통 된지 벌써 2년이지만 그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고속열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다.

그날 공부의 주제는 '국제이주와 양성평등에의 전망'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오신 마주라아시스 박사의 강의와 질문, 토론이 이어졌다. 강의를 들으면서 필리핀 여성들도 베트남여성과 똑같은 이유로 국제이주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주여성들은 90년대 이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지만 요즘은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나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나에겐 어려웠다. 세미나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자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베트남 여성들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쳤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해 한국이 널리 알려져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베트남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가난한 베트남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도박을 선택하는 것이다. 작은 그물에서 힘차게 나가려고 오히려 더욱 큰 그물에 빠지는 셈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답답해한다. '왜 빨리 안 배우니? 왜 아무것도 못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자입장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몇 십년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다.

세미나를 통해 국제이주문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뻐다. 모임이 끝난 뒤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라며 우린 청개천의 물길을 따라 건다가 동대문시장을 구경하고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느낀 새로운 경험들도 함께 기차에 싣고서...

## 가슴 벅찼던 ‘베트남 문화의 날’

하선미 | 어울림 베트남 상담원



‘베트남 문화의 날’을 준비하는 동안 내 어깨엔 곰 세 마리가 매달려 있는 듯 했었다. 나는 사회를 맡았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떨려서 나는 매일매일 그 날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 ‘4월 20일을 건너뛰고 하루가 시작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다.

드디어 4월 20일, 그 날이 왔다.

60여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보려고 하니 내 심장은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소장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를 마음속으로 외쳤다. 또한 옆에 나현씨가 함께 있으니 걱정만큼 떨리지는 않았다. 역시 나현씨는 나의 든든한 파트너였다.

베트남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했다. 그 때마다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힘이 솟고 신이 났다. 슬라이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 노래를 한 곡씩 불렀다. 한국의 아리랑과 같은 전통 민요였다. 노래를 부른 뒤

각 나라의 학생들도 자기나라 노래를 불러줬다. 다른 나라 친구와 함께하니깐 더 즐거운 날이었다. 설명이 끝난 뒤 점심으로 베트남 냄(만두)을 먹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걱정과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 것은 베트남 문화와 특히 베트남 여성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서는 밖에 나가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라는 광고가 사람장사처럼 버젓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문화의 날을 통해 나는 베트남 문화와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좀 알았겠지?

원래 문화의 날 행사는 베트남 학생들이 다 준비했어야 하지만 사무실 사람들과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고, 특히 소현씨가 고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덕택에 순조롭고 즐겁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행사를 마치고 혼자 서 있는데 안미란 선생님과 이정숙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선미씨, 오늘 참 잘했다.”고 하셨다. 웬지 모를 벅찬 감정을 느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고, 우려했던 사회도 나름대로 멋지게 해냈기에 뿌듯하기만 했다. 우리 그 날 참 잘했죠?

# 미국 이민법 개정운동의 배경과 쟁점

김우선\_ 예수회 신부

“오늘은 시위하고 내일은 투표한다”는 정치인들에게  
뜨끔한 구호와 함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그룹과  
이민자조직, 가톨릭교회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포괄적 이민법 개혁이 필요함을 알려온 활동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미국 전역에서 110만명이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기사가 한국에도 널리 소개가 되었다. 하지만 흑인인권운동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평가하는 이민법개정운동이 왜 전개되고 있고 무엇이 쟁점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는 수입해도 이민자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관념 하에, 한국사회가 이민자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의 심화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증대가 불가피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이 이슈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당면할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미국 이민법 개정운동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주류 사회의 이민자 규제압력

이번 이민법 개혁운동은 하원에서 작년 연말 HR4437이라는 이민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법

안은 1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이민자를 (미국 노동인구의 5%, 한국은 이주노동자가 2%를 차지) 국경통제와 안보와 연관지어 규제할 목적으로, 미등록이민자들을 추방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가 미등록이민자를 고용하거나 돕는 행위도 범법행위로 규정되며, 지역경찰에게 연방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러한 내용은, 첫째 추방당한 미등록이민자는 가족이 시민권자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법률서비스 제공, 무료급식소에서의 식사 제공 등 인도적 봉사까지도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이들을 도와주는 교회나 변호사, 교사, 사회사업기관, 자원봉사자들도 범법자로 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경찰이 연방이민법의 집행자가 되면 미등록이민자가 범죄나 착취를 당해도 추방당할 수 있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므로, 더욱 취약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안 상정의 배경에는 9.11 테러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과 미등록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반이민자 정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김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도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헨팅톤이라는 하버드대학 정치학자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도전받는 미국정체성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2004)이라는 저서에서, 멕시코계 이민자에 의해 미국의 정체성이 침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영어나 미국적 가치를 배우지 않으며 동화되지 않고 살기에, 미국이 문화적으로 앵글로 미국과 히스패닉 미국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멕시코계 이민자의 탓만이 아니라, 문화다원주의나 이중언어 정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등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미국의 진보적인 정책에도 그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미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신교 백인 (WASP :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국가인 것이다.

### 포괄적 이민법 개혁운동

HR4437에 대한 이민법 개혁운동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HR4437 법안이 비인간적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해 온 가톨릭 LA 대교구 마호니추기경은 이 법안대로 하자면 중남미계 이민자가 미사에 오면 신부는 그에게 비자를 보여 달라고 청해야 하냐고 물으며, 미등록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듯이 돌봐주면 교회 관계자는 감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이 법안의 악법성을 고발하였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이민자에 의해 건설된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도 상반되기에 (헨팅톤같은 사람이 보는 정체성과 다르다!), 설령 제정된다고 해도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밝히기도 하여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이들 개혁운동에서는 비인간적인 HR4437 대신에 인권과 노동권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을 상정하도록 상원과 미국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포괄적 이민법의 내용은 (1)미등록이민자를 합법화하고, (2) 합법이민자의 이산가족이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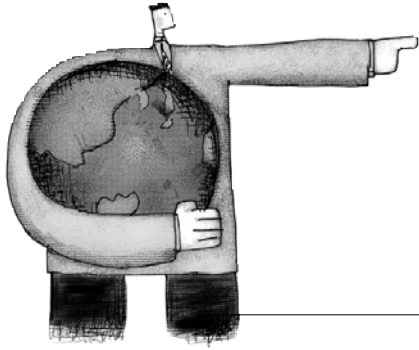
며, (3)필요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노동력 고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차별이나 착취, 인권침해에서 이민자를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오늘은 시위하고 내일은 투표한다

상원에서는 현실적으로 1100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경통제 외에 부족한 노동력해소도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손님노동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등록이민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즉,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5년 이상 미등록이민자는 벌금과 세금을 내고 영어를 익힌다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을 열어놓고, 5년 미만의 경우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손님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HR4437보다 진일보한 이 절충안은 상원투표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막판 양당의 입장차이로 실패하고 새로운 회기로 넘겨졌다.

이런 배경에서 5월1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행해진 것이다. "오늘은 시위하고 내일은 투표한다"는 정치인들에게 뜨끔한 구호와 함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그룹과 이민자조직, 가톨릭교회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포괄적 이민법 개혁이 필요함을 알려온 활동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자에 의해 건설된 미국과는 달리 이민수용의 역사가 없는 한국은 이번 개정운동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 가지 제안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 못지않게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알아차리고 이민자를 통합하려는 사회의 유연성이 배양되지 않는 이상, 평등한 법과 제도의 제정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것이 제정된다 해도 이민자를 3등 시민으로 대접하는 사회의 차별은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라고 버젓이 걸려있는 현수막이 아말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생한 초대장이 아니겠는가!



# 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116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오늘은 116번째 세계 노동절입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지 벌써 116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데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특근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여러분, 이주노동자 법에 대해 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산업연수생제도는 15년간 계속되고 있고, 2004년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다 문제가 생겨서 노동부를,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지켜지면 되고, 산재나면 보상이나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년 일해서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해도 우리는 왜 늘 최저임금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월차도,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계약직에, 사장에게 잘못보이면 바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사업주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러먹으려고 합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협하듯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또한 국적과 국경을 넘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집회에서의 방글라데시 사골의 연설



# 장면 1

때 : 같은 날 오후 1시 반  
 장소 : 인권모임 4층  
 매주 이 시간이 되면 교회를 마친 후 허겁지겁 정해진 루트에 따라 통닭집으로 향한다. 새로 계약을 맺은 통닭집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양이 많고 결정적으로 닭똥집을 튀겨서 텀으로 준다. 주차를 위해 골목안으로 들어서면 어김없이 자동차 뒷 범퍼가 땅에 심하게 긁히는 소리가 난다. 월례행사다. FWR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며 음식을 옮긴다. 아직은 거뜬하다. 식구들이 많이 있으면 보따리 푸는 게 신나지만 얼마 없으면 기운이 빠지기도 한다. 수줍음 많은 딸 하진을 달래면서 여기저기 통닭을 나르느라 바쁘다. 뒤편 뒤편 해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일요일 달콤한 낮잠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하다. 이런 저런 얘기도 하도, 농담도 하고, 토론도 하도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짐 챙기고 문을 나선다. “다음 달에 또 봅시다!”란 말과 함께...

# 장면 2

때 : 뜨거운 한낮  
 장소 : 건축공사장  
 세 명의 일꾼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어떤 사람이 다가와 첫 번째 일꾼에게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죠?” 그 일꾼 왈 “보면



콧노래 부르는  
 배달기수들  
 꿈꾸며

김기환  
 자원활동가/운영위원

모르시오. 벽돌을 쌓고 있잖소.”

두 번째 사람에게 묻자, “날 더운데 장난을 치나, 벽돌 쌓고 있잖아”며 화를 낸다.

그런데 세 번째 일꾼은 다른 사람과 달리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일을 하고 있기에 다가가 물었더니, “나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다오.”며 답변을 하였다.

(이원설 · 강현구,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중)

인권모임과 인연을 맺은 지도 8,9년이 되어가는 듯하다. 시간의 절대성에 나도 인권모임도 모두 변했다. 외양과 내용에 있어 인권모임의 발전은 눈부시다. 반면 인권모임과의 관계에 있어 나의 발전은 한 달에 한번 통닭을 배달해주는 ‘배달기수’가 되어 버렸다. 더욱이 회사일로 엄청 바쁜 요즘에는 그 한 달에 한 번도 벽찰 때가 있다. 난 요즘 ‘성당’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이다.

나 혼자만 이런 것일까? 하진이 엄마는? 다른 자원활동가들이나 상근자들은 어떠할까?

“이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공자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기왕이면 나도 콧노래를 부르며 ‘통닭’이 아니라 ‘인권모임’을 배달하고 싶다. 아자! 아자! 파이팅!!!



## 국내이주노동 소식

###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



정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푸아드(Nur Fuad)씨는 부천의 한 공장에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을 피해 3층에서 옆 건물로 뛰어내리려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단속반원들은 영장제출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넣어 결국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제단속중단,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출입국사무소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강제단속 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편, 5월 6일 창원의 한 공장에서는 중국인노동자 한 명이 단속반원을 피해 2층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정책으로 올해 들어 벌써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가 20만여 명에 이르는 미등록체류자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려 한다면, 또 다시 안타까운 사

고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 지급하라' 판결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12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방글라데시인 J(36)씨 등 55명이 일하던 업체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피고 회사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 예규가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국적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하급 법원에서 인정하거나 불인정하는 등 엇갈렸으며 대법원은 이를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입장을 유보해 왔다.

### 유해화학물질 중독사고 발생

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 사망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 녹산의 한 피혁업체의 중국동포 산업연수생인 김씨가 지난 2월부터 DMF 등의 원료를 배합하는 공정작업을 해오던 중 급성 전격성 간부전 증세로 사망했다. DMF

는 간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미치는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김씨는 지난 2월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효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DMF 처리공정에 배치돼 일하다가 간 기능이 더욱 악화돼 치료를 받아오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치 전 김씨의 간효소 수치가 높았음에도 DMF 공정에 배치된 책임이 검진기관에 있는지 사업주에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 해외동포의 국내취업 '간편화, 업종확대'

앞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이 쉬워지는 한편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절차의 간소화와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도소매업, 여행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이주노동 소식

### 대만,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처우 문제가 대만 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21일에는 타이 출신 노동자 1700여명이 가오슝시 지하철 공사 현장의 관리실을 부수고 기숙사 유리창 등을 깨며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관리직 직원에게 타이 노동자 1명이 구타당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동안의 불공정한 대우와 열악한 숙소환경, 임금체불 등으로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면서 삼시간에 대규모 시위로 번진 것이다. 회사 쪽과 노동자들은 협상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기숙사에 위생티브이를 설치해준다는 선에서 합의해 사태는 일단락됐다. 타이 노동자들은 임시건물로 지어진 기숙사 1동에 400여명이 수용돼, 걸어 다닐 통로도 제대로 없이 빠르게 들어선 2층 침대 속에서 더운 여름날 겨우 선풍기 몇 개로 더위를 식히며 살아야 했다. 이들의 월급은 2만9500대만달러(약 90만원)이나, 관리회사가 숙식비 등을 떼 실제로 받는 돈은 7000대만달러(약 21만원)이다. 그나마 체불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대만 내 타이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4천여 명이다. (한겨레 4월 15일자)

### 남아공으로 몰려드는 아프리카 난민들

식량난과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난민들이 남아공으로 몰려오고 있다.

난민신청 입국자 11만3천410명 중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와 함께 에티

오피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 5개국 신청자가 5만1천75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46%를 차지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과도정부가 들어섰으나 동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소말리아는 아예 실질적인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아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짐바브웨는 26년 동안의 철권통치 정권 하에 가뭄 등이 얽혀 400만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동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가뭄 등으로 인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한편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항의 시위 과정에서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4월 21일자)

### 프랑스 새 이민법 ‘인종차별과 사회분열 조장’



프랑스의 새 이민법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외국인만 받아들인다는 새 이민법이 인종차별적이고 사회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도 새 이민법에 분노하고 나섰다. 13일 파리에서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이민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의 1만여 명의 시위대는 “하위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고, 아프리카 목소리에 맞춰 “모든 사람에게 체류권을, 누구에게도 국경이란 철조망을 드리우지 말자”를 외쳤다. 이미 5만 1000명이 1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입

국 및 체류 관련법 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새 법안은 외국인들의 프랑스 입국과 거주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특히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10년간 프랑스 불법 체류 시 자동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6월 6일부터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지만, 새 이민법 반대자들은 이번 시위로 정부가 일부 법안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일신문 5월 16일자)

### 호주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대상 영어시험 주장

호주 내 외국인 초빙노동자들이 언어소통 상의 문제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영어시험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이 최근 시드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0명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거의 30%는 의무적인 안전교육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은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3분의 2 정도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와 야당(노동당)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은 물론 작업장에서 부상이나 사망사고 등 산재를 입게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영어시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주 건설노조는 영어시험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면서 “초빙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여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능력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4월 25일자)



▶ 봄나들이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4월 30일, 구름 한점 없이 화창한 날 경주의 노오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경주박물관 둘러보고, 반월성주변 나무그늘에서 각국의 노래와 춤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230명이라는 인권모임 봄나들이 역사상 최대인원이 함께한 봄나들이는 이주노동자들이 고된 작업장을 떠나 자연을 벗 삼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116주년 노동절집회 참가

5월 1일 시청 앞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와 서면까지의 행진에 한국인노동자들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피켓의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날 맞이 '아시아와 친구하기'

어린이날을 맞아 을숙도에서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아시아와 친구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전시부스 및 아시아의상 입어보기, 아시아음식 맛보기 코너를 진행하였고, 아시아평화인권연대에서는 아프간/캄보디아 어린이를 위한 기금마련코너를, 어울림에서는 이주아동 영주권 촉구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 노동절기념 마라톤대회

11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제5회 마라톤대회가 다대포에서 열렸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다대포 바닷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 정귀순대표 캄보디아 방문

5월 3~10일, 정귀순 대표님께서 캄보디아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지원사업인 알롱강안 센숙 중고등학교 학교건축비, 아이들 공부방,

남편을 잃은 여성과 에이즈 환자들의 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 자원활동가 인권캠프

5월 20~21, 남천동에 위치한 카톨릭수련원 '푸른나무'에서 자원활동가 인권캠프를 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통해 차이와 차별의 문제를 생각해보며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원활동가 서로 간에 친밀함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단속추방반대 및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촉구 캠페인

최근 출입국직원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속추방의 폭력성과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5월 28일, 부경공대위 소속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서면 주디스타화 앞에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 이주와인권연구소 6월 세미나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는 부산대 사학과 정영주 선생님과 함께 <영국 인종차별 정책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6월 1일(목요일) 저녁7시, 인권모임 3층 교육관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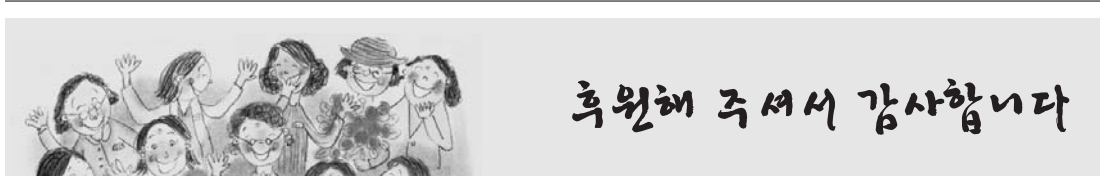
4월

회계보고

| 항 목 | 내 용         | 금 액                  | 항 목       | 내 용          | 금 액         |         |
|-----|-------------|----------------------|-----------|--------------|-------------|---------|
| 이월금 |             | 6,780,393            | 지 출       | 운영비          | 1,941,020   |         |
| 수 입 | 후원회비        | 8,738,000            |           | 사업비          | 출장차비(세미나 등) | 446,200 |
|     | 특별회비        | 전경호님 3만원, 법연원 30만원   |           |              | 연대활동        | 292,000 |
|     |             | 이정웅님 35만원, 정미혜님 20만원 |           |              | 한울다리        | 261,000 |
|     |             | 장현석님 10만원, 황우진님 10만원 |           |              | 외국인지원       | 39,500  |
|     |             | 아그네스님 3만원, 이정숙님 3만원  |           |              | 어울림         | 166,130 |
| 소 계 | 1,140,000   | 인쇄비                  |           | 180,000      |             |         |
| 기 타 | 바자회수익금      | 51,000               |           | 봄나들이         | 2,898,040   |         |
|     | 한글교재 판매     | 20,000               |           | 기타           | 34,260      |         |
|     | '어울림' 활동지원비 | 180,000              |           | 소계           | 4,212,420   |         |
|     | 봄나들이 회비     | 1,005,000            | 활동비       | 9명 5,504,200 |             |         |
| 소 계 | 1,256,000   | 특별지출                 | 임대보증금 적립금 | 1,000,000    |             |         |
| 총수입 |             | 11,134,000           | 소계        | 1,000,000    |             |         |
| 잔 액 |             | 5,076,753            | 기 타       | 기타           | 50,000      |         |
|     |             |                      | 총지출       |              | 12,837,640  |         |

◆ 의료기금: 아주약품공업(주) 30만원

(단위:원 /\*의료기금 별도)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훈 1만원, 강갑례 1만원, 강동일 1만원, 강석권 1만원, 강인희 1만원, 강종섭 1만원, 강호영 2만원, 고희일 1만원,곽순배 1만원,곽희환 1만원, 구미현 1만원, 권무용 2만원, 권민철 1만원, 권봉수 1만원, 권순고 2만원, 권영아 1만원, 권오경 1만원, 권오균 1만원, 권이경 1만원, 권진용 1만원, 권치명 1만원, 김기영 1만원, 김강석 1만원, 김경애 3만원, 김경은 1만원, 김경조 6만원, 김경중 5천원, 김관호 1만원, 김광모 2만원, 김국중 1만원, 김귀옥 1만원, 김근숙 1만원, 김기환 2만원, 김대준 2만원, 김동수 1만원, 김동수 3만원, 김둘레 1만원, 김무영 1만원, 김미수 1만원, 김미애 2만원, 김미정 2만원, 김민기 1만원, 김병희 1만원, 김봉제 1만원, 김분정 1만원, 김석준 1만원, 김성목 2만원, 김성수 1만원, 김성화 1만원, 김성희 2만원, 김승태 1만원, 김수연 1만원, 김순영 1만원, 김승배 3만원, 김승태 1만원, 김승학 1만원, 김연정 1만원, 김영수 2만원, 김용보 2만원, 김용채 1만원, 김인수 1만원, 김인숙 1만원, 김재정 1만원, 김재필 5만원, 김점미 1만원, 김정덕 1만원, 김정아 1만원, 김주정 1만원, 김정희 5만원, 김중순 1만원, 김중탁 2만원, 김중훈10만원, 김주영 1만원, 김준수 1만원, 김진범 2만원, 김진영 3만원, 김창수 1만원, 김철봉 2만원, 김형영 1만원, 김춘식 2만원, 김태만 1만원, 김태은 1만원, 김태현 1만원, 김 향 2만원, 김혜량 1만원, 김혜순 1만원, 김호진 2만원, 김홍기 2만원, 김희원 1만원, 김희준 3만원, 남경문 1만원, 노기덕 1만원, 노득현 2만원, 노민수 2만원, 노재학 1만원, 노혜숙 1만원, 노규인 5천원, 류선자 1만원, 류인수 1만원, 마창순 1만원, 문 경 1만원, 문소연 3만원, 문은자 3만원, 민문식 1만원, 박경숙 1만원, 박광주 5만원, 박광희 3만원, 박권봉 2만원, 박 령 1만원, 박명환 2만원, 박민정 5천원, 박민호 2만원, 박상진 3천원, 박선희 1만원, 박성률 1만원, 박수관 1만원, 박숙경 1만원, 박승태 1만원, 박신혜 1만원, 박영윤 1만원, 박원규 2만원, 박인순 3만원, 박인조 1만원, 박재경 1만원, 박재울 1만원, 박정미 2만원, 박정백 1만원, 박종명 1만원, 박준현 8만원, 박진호 1만원, 박총림 1만원, 박태식 2만원, 박현목 1만원, 박현희 1만원, 박혜연 1만원, 박홍준 1만원, 박홍실 1만원, 방현문 2만원, 배경태 2만원, 배성영 2만원, 배성욱 1만원, 배영미 1만원, 사은희 3만원, 서보성 1만원, 서상욱 2만원, 서석홍 1만원, 서영준 3만원, 서용순 1만원, 서정창 1만원, 서정희 5천원, 설동일 1만원, 성낙용 1만원, 성미경 1만원, 성신아 1만원, 성중순 1만원, 손건태 2만원, 손병호 1만원, 손상우 1만원, 손영술 5천원, 손은숙 1만원, 손진희 1만원, 손현숙 1만원, 송세령 1만원, 송숙희 1만원, 송승아 1만원, 송영조 1만원, 송인숙 1만원, 송정실 1만원, 송해림 2만원, 송혜영 1만원, 신광호 1만원, 신영주 1만원, 신용보 1만원, 신용진 1만원, 신 운 2만원, 신현진 3만원, 신현철 2만원, 심상하 1만원, 아그네스 3만원, 안미란 1만원, 안양숙 2만원, 안희의 3만원, 안현주 1만원, 양부석 1만원, 양성민 1만원, 오병택 5만원, 오상준 1만원, 오재욱 1만원, 오정섭 1만원, 오현정 1만원, 오형진 2만원, 오혜수 1만원, 오홍민 1만원, 옥은숙 1만원, 옥종석 1만원, 왕수봉 1만원, 우현숙 5천원, 유승목 5천원, 유영정 1만원, 유지숙 5천원, 유지는 2만원, 유철승 1만원, 유현미 1만원, 윤 훈 3만원, 윤경인 1만원, 윤민한 1만원, 윤영인 1만원, 윤인섭 2만원, 윤정순 1만원, 윤정희 3만원, 윤주혁 1만원, 윤창호 1만원, 윤태환 1만원, 이광수 2만원, 이극용 1만원, 이근호 1만원, 이근환 2만원, 이기명 2만원, 이기숙 1만원, 이기환 1만원, 이길원 1만원, 이도희 1만원, 이동근 1만원, 이명숙 5천원, 이문재 1만원, 이병운 2만원, 이봉선 1만원, 이상일 1만원, 이상돈 1만원, 이상순 3만원,

이상훈 1만원, 이선옥 1만원, 이성홍 2만원, 이숙의 5천원, 이숙희 1만원, 이승준 2만원, 이여주 1만원, 이영림 1만원, 이오상 1만원, 이옥란 1만원, 이원정 1만원, 이윤정 1만원, 이은아 1만원, 이인용 1만원, 이재열 2만원, 이재훈 3만원, 이정미 5만원, 이정웅 35만원, 이정숙 3만원, 이정현 1만원, 이정형 1만원, 이정호 1만원, 이종석 5만원, 이종훈 1만원, 이직수 1만원, 이진 2만원, 이진숙 1만원, 이진웅20만원, 이창현 5천원, 이한석 3만원, 이현애 1만원, 이현주 1만원, 이현지 1만원, 이희구 1만원, 이호성 3만원, 이희섭 1만원, 임남순 1만원, 임만수 1만원, 임성식 1만원, 임종진 1만원, 임훈식 1만원, 장경화 1만원, 장상환 1만원, 장소심 1만원, 장영미 1만원, 장 은 1만원, 장은영 3만원, 장정석 1만원, 장준호 1만원, 장현석10만원, 장현준 2만원, 장현환 1만원, 전영선 1만원, 전윤희 1만원, 전진성 1만원, 정광모 1만원, 정광민 2만원, 정달상 2만원, 정명선 1만원, 정명숙 1만원, 정문상 2만원, 정미혜20만원, 정민주 1만원, 정상복 1만원, 정상용 2만원, 정상헌 1만원, 정세운 3만원, 정소영 1만원, 정순교 5천원, 정승호 1만원, 정영오 1만원, 정영주 1만원, 정원엽 2만원, 정정식 1만원, 정종영1만원, 정중희 5천원, 정지연 1만원, 정진현 3만원, 정철상 20만원, 정춘화 1만원, 정한섭 2만원, 정현숙 5천원, 정혜영 1만원, 정호수 1만원, 정효경 3만원, 조기중 3만원, 조남규 1만원, 조대환 2만원, 조문성 1만원, 조미라 2만원, 조백기 1만원, 조병준33만원, 조석현 1만원, 조성제 1만원, 조양호 1만원, 조용원 1만원, 조우래 5만원, 조원민 1만원, 조종원 1만원, 조창중 5천원, 조항미 1만원, 조현창 2만원, 조 협 1만원, 조형래 2만원, 짜 짜 2만원, 차상조 2만원, 채용수 1만원, 천덕희 5만원, 최미화 1만원, 최승주 5만원, 최영수 2만원, 최우창 5천원, 최은진 1만원, 최이준 1만원, 최재문 1만원, 최정훈 1만원, 최진배 1만원, 최혜영 1만원, 최효재 5천원, 팽지양 1만원, 하병두 5만원, 하수진 1만원, 하은정 3만원, 하재홍 1만원, 하창호 1만원, 하현석 3만원, 한상욱 2만원, 한성일 1만원, 한은정 1만원, 한창준 1만원, 허 준 2만원, 홍금희 1만원, 홍순권 1만원, 홍옥이 1만원, 홍우열 1만원, 홍은희 1만원, 홍정이 1만원, 홍한진 1만원, 화명식 2만원, 황영욱 1만원, 황영희 1만원, 황우진 10만원, 황재순 1만원, 황진수 1만원

국민은행김해기업금융지점 5만원, 나노폴(주) 50만원, 나눅스(주) 30만원, 믿음교회10만원, 법무법인부산 10만원, 법연회 30만원,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5만원, 신종건남외(강현관, 김상배, 우문철, 정철상) 60만원, 성민회 2만원, 외환은행부전동지점 5만원, 우연(주)100만원, 한토회 2만원

※ 의료기금 - 아주약품공업(주) 30만원  
 ※ 죄송합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된 후원회원이 있으시면 인권모임으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일~4월 30일)

## ★감사드립니다★

아주약품공업(주)에서 30만원, 하나영님이 청바지 51벌, 곽성미님이 선물 세트, 박재환님이 커피 세 박스, 이정운님이 의약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원활동가 인권캠프의 숙식비일체를 지원해주신 천주교부산교구, 인권모임 대문을 예쁘게 칠해주신 이여주님, 각국어신문 인쇄를 지원해주시는 대왕인쇄 송수남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간식을 준비해주신 사하구상담자원봉사자회 분들과 예수성심정교회 수녀님들, 김기환님·김기선님, 나눔의씨앗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이런 일에 쓰입니다.

-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노동상담 및 인권·생활상담)
- 무료진료소 운영 (일요일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건강검진, 응급환자지원)
- 한글교실·컴퓨터교실 운영, 아시아문화한마당 개최,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이주노동자 정보제공 (아시안위커스뉴스 발행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 이주여성·다문화가족 센터 '어울림' 운영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
- 긴급피난처 및 이주노동자 교육·문화공간 '한울타리' 운영
- 인권캠프 개최, 교육자료 발간, 일요일 간식제공
-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가족지원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후원방법

- CMS 후원 :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모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계좌를 통한 후원 :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자동이체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은행 : 213-02-001807-3 정귀순

농협 : 929-12-180511 정귀순

국민은행 : 104-01-1243-062 정귀순

우체국 : 601385-02-088454 정귀순

외환은행 : 039-38-06629-8 정귀순

국민은행 : 957501-01-262160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새로 인권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현주님, 광성미님, 조은나님, 박진영님, 정영경님, 최진묵님, 박보영님, 권선정님,  
한효진님, 소미현님, 김양임님, 김진섭님, 김솔지님, 김경애님, 김현석님, 백경태님,  
이동고님, 전애선님, 유지숙님, 김희숙님